

자기소개서

소 속	〇〇 고 등 학 교	직 위	교 감	성 명	〇 〇 〇
-----	------------	-----	-----	-----	-------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일동고등학교 교장공모에 지원하며 그동안의 교사 생활을 회상해 봅니다.

나의 교직은 K외국어고등학교(현, K아이티고)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사립학교가 갖는 특징점이 많지만 한 곳에서 계속 근무함에서 오는 답답함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던 차에 K학원에서 근무한 지 16년 만에 사립특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나의 교직 생활뿐 아니라 삶의 새로운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공립학교로 처음 부임 하던 날 새로운 차원의 교육실천을 이루게 될 기회에 대해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에 따른 계획과 포부에 대한 기대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직 생활과 경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일동고에서 할 일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나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고마운 선배 교사들

가. 따뜻함과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혁신적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A선배교사

K외고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A선배교사가 나에게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내의 여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 보면서 학교 밖 활동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선배님의 말씀은 나의 교직 생활을 늘 새롭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및 검토위원, 외고와 일반고 중국어 교과서 검토, EBS 수능중국어 집필 및 검토, 교육청 학교평가위원 등의 일을 하게 된 것, 그리고 관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도 그분의 영향이 컸습니다. 교직 초년 시절, 선배교사의 따스한 관심은 교직 생활을 하는 내내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추진력과 결단력, 실천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지금 A선배교사는 K학교에서 교장으로 퇴임하셨습니다.

나. 학생지도와 자신의 교과 전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B선배교사

K고(일반고)인문계 고3 담임을 맡게 되면, 우리 반은 매일 6시 30분까지 예외 없이 모두 등교,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9시까지 자율학습,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조퇴시간에 영어단어시험을 봤습니다. 언제나 일관성있게 지도하는 담임교사의 태도와 주로 학생부에서 생활지도계를 맡았던 덕분에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의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주 토요일은 담임인 내가 청소다!”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 반 아이들 기분

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엄하지만 따뜻한 선생님이었고, 그런이유로 아이들이 나를 ‘우카 (우아한 카리스마)’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영어 교과를 가르치시는 B선배교사를 통해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학급을 운영하며 엄격한 규칙준수 관리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통한 소통방식의 균형을 통해 내가 맡은 학급도 처음 계획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근면한 그 선배교사는 항상 교무실에 먼저 출근하여 하루도 빼놓지 않고 큰소리로 일본어 소설을 읽고나면 바로 AFKN 뉴스를 틀어놓고 미국인 아나운서와 같은 속도로 읽으며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는 등 교과외의 전문성과 자기관리에 철저하였습니다. 그 선배님의 생활 태도와 모습은 교직생활에서의 전범으로 그 분이 내게 다가왔고 이를 실천하고자하는 나의 의지로 구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D고, S고 학생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

가. D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부장교사를 하다

마흔 초중반에 공립고로 처음 발령을 받은 그 이듬해 처음으로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2학년부를 맡았습니다. 부장을 맡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기, 3월 20일경으로 수학여행 출발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도 협력적이고 배려심 있는 두 분의 부원선생님들 덕분에 성공리에 수학여행 준비를 하여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한라산 등반 시 2학년 전체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혹여나 한라산에 플라스틱 물통을 버리고 오면 어쩌나 고민을 하다가 “지금 나누어주는 물통은 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와야 합니다. 빈 물통이 간식 교환권입니다.”라고 전달한 덕에, 학생들의 빈 물통이 모두 수거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일에 함께 기꺼이 동참한 학생들과 선생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한해의 학년부장 경험을 통해, 교사의 역할은 수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장으로서의 숭선수범은 물론, 부서원의 선생님들이 서로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지도 면에서 규칙준수와 엄격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의 내면을 읽어 주고 살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인정해 주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나의 작은 관심으로 인해 학생은 자신의 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모색해 가는 학생들을 통해 교사로서의 보람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나. S고등학교의 핵심인재반을 운영하며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을!

포천내의 S고등학교에서 9년을 근무하며 4년간의 교무부장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시 전과목 내신성적 1등급인 학생이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하여 서울대학교에 낙방하는 것을 보며, 몇몇 뜻 있는 국,영,수 선생님과 의논했습니다. 학생들을 1학년부터 꾸준히 관리하여 가르친다면 수능에서도 과목별로 1등급이 나올 수 있을까? 모두 가능하다는 답을

했고, 그렇다면 S고에서도 SKY 대학교에 진학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한번 해볼까? 라는 의견을 나누고 있을 무렵, 교장선생님께서 부르시며 “학년별로 전교에서 상위 10~15 등 이내의 학생들을 포천시청에서 보내달라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포천시에 있는 유명한 기숙형 00학원에서, 그 아이들에게 특별학습을 시켜서 SKY 등 소위 명문대학에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선생님들과 협의를 통해 교장선생님과 면담하면서 “우리학교에도 의욕있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시에서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다니 특별학습은 우리가 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포천시와 교장선생님들 간의 협의가 잘 진행되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 포천의 7개 고등학교별로 각각 ‘핵심인재반’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고 핵심인재반의 운영 수칙 중 해당학생은 절대로 학원이나 과외하지 않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학교에서 공부하기, 집안 행사 등은 한달에 딱 한번만 이용하기, 가르치는 교사는 당일 수업한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 한 퇴근 안 하기, 모의평가 결과에서 개개인의 틀린 곳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인 지도하기 등의 계획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초기에는 학생들이 반발도 많았고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학생들도 일부 있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관내 중3학생들이 S고 핵심인재반에 들어오기 위한 학원을 다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모두 그렇게까지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덕분이었으나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지 못하는 미안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선생님들은 보상은 뒷전이고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SKY대학에 해마다 2~4명은 들어갔고 이로 인해 학교의 위상이 높아짐은 물론 관내 7개 학교 핵심인재반 학생 학년별 140명(7개고등학교X학년당20명) 중 10명에게 장학금을 학기마다 주는데, S고 학생들이 각 학년별 10명 중 7~8,9명을 모두 차지할 때의 기쁨과 보람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S고 덕분에 집값이 올라갔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었습니다. 학교가 발전하면 지역의 발전에도 진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간담회에서 자신 있게 포천시장님께 “S고가 도로변에 있어서 소음이 큼니다. 방음벽을 설치해주시요. 그리고 핵심인재반을 밤낮으로 지도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내 고향 학교 보내기 프로젝트’에 성공하였으니 지도교사 해외연수를 보내주셔서 힐링과 수고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라고 요구했고, 7개 고등학교의 핵심인재반 지도교사의 해외여행이 추진되어 다녀왔으며, 2억원(교육청 5천만원 지원)을 지원 받고 현재의 방음벽도 설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학생들의 진로진학지도는?

농어촌 전형의 장점을 이용하여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생기부에 기록할 만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장래 희망, 특성과 적성에 맞게 교과 및 창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 한 명 한 명 맞춤형 진로 지도를 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비록 비수도권이지만 자신의 적성과 앞으로의 삶을 도모할 수 있는 입시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가정, 학습, 친구 관계 등의 문제로 전과 다른 학생의 눈빛이 읽어지고,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느낌이 들면 바로 학교 앞의 포천시 청소년0000센터 상담소장님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업중단위기 학생들도 무사히 졸업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소중한 기억은 지금도 가슴 벅차게 느껴집니다.

3. 특성화고 교감으로 발령받다

1고등학교(특성화고)로 첫 교감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외고와 인문계고 근무 경험만 있었던 내가 과연 특성화고에서 제대로 교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했더니 생소한 학과의 이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멀티미디어디자인과(구 전기전자통신과), 생명화학공업과, 인테리어디자인과(구 건축과), 뷰티디자인과, 조리디자인과, 제과제빵과로 총 6개 학과가 있습니다. 내가 교감으로서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난감하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NCS’, ‘특성화부장’, ‘취업부장’, ‘과부장’. 기능경기대회 등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들이었지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우자!라는 마음으로 첫 교직원회의에서 솔직하게 마음을 전달하며 열심히 배워보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했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역시 시간이 흐르며 선생님들도 한분 한분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조직관리는 진솔함과 합리성, 그리고 민주적인 소통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믿어주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통한 덕분에 3년 반이 지나며 지금은 특성화고에 대한 이해는 물론 특성화고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과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특별한 갈등상황 없이 슬기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선생님들 또한 교감과 함께 소통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이 흐름을 타고 이제는 편안함에 안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교감의 역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고가 지난 4년간의 취업 뿐 아니라 산업체 현장실습처의 협약비율이 저조하여 2020년도에 특성화고 재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에 재지정을 받지 못하면 특성화고의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나부터 직접 1고 학생들이 현장실습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러 다녀야겠다고 생각하고 지인을 통해 두달 사이에 100여 곳의 업체와 협약을 맺었고 결과적으로 2021년도에 다시 특성화고 재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신청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겪게 될 시행착오를 사전에 줄이고자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고교학점제가 갖는 특성상 더 많은 학습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도 유희교실이 없으니,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많은 선택 수업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그린스마

트 미래학교 사업을 신청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사업을 보완하고자 하였고 고양지역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1고가 200여억원을 들여 공간혁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특성화고입시에서 1고는 한번도 미달된 경우 없이 학생모집을 했지만 뷰티, 조리, 제과제빵의 가사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과계열의 학생모집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과 개편을 시도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인 학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그렇게 될 때만이 특성화고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해당 학과 선생님들은 학과개편의 필요성을 알지만,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지금은 하고 싶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 학교에 내 아이가 다닌다면 어떤 것을 배웠으면 좋겠는가? 학교를 믿고 온 학생들을 위해 힘들어도 미래를 준비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 생명화학공업과는 ‘바이오화장품과’로, 멀티미디어디자인과는 ‘IoT(사물인터넷)디자인과’로 학과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고 민주적인 풍토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교로의 변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 일동고등학교 학교장이 된다면

가. 미래학교에 걸맞는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1) 일동고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시대변화의 양상을 적극 반영하여 학교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2) 학생의 진로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뜻을 모아 진학과 취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3)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동문회, 지역사회 등의 의견과 요구에 대해 귀 기울이는 시간과 기회를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가질 것입니다.

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 교직원 간의 인화에 힘쓸 것입니다. 가화만사성과 같습니다. 교직원들 간의 상호 협조, 존중과 배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 2) 교사의 역량은 학생을 가르치는 에너지원입니다. 교사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자 하여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자신의 역량개발이 등한시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기숙사관리의 무게감을 줄이고 행정업무효율화를 위한 개편을 구체화하겠습니다.
- 3) 학기당 1회 교과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수업시간에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4) 학년별 학생·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및 진로·진학 설명회를 통해 학생의 선택과목 등의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년 희망 취업처 데이터 분석과 고용노

동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업 성공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 5) 리버럴 아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서를 정비하고 독서교육에 힘쓰겠습니다.
- 6) 특성화계열 학생에게는 1인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하며 학생이 원하는 취업처를 발굴하고 인문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꿈을 찾고 용감하게 도전하고 이를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실천의지를 키워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7)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와 서로 상합하지 않는 요소를 추출하여 재구성하고 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할 생각이며, 위에서 언급된 내용 이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세워진 계획이 완벽하게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경영하겠습니다.
- 8)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신의 삶과 학교생활에서 스스로 주인 됨에 대한 자각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인격적이고 자율적 존재로서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9) 학부모님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학부모님 스스로 일정 수준의 전문적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10)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일동고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며 학생들의 안목을 높이겠습니다.
- 11) 이 모든 활동의 기저는 일동고등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자의 자율성입니다. 즉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일동고의 지향 방향은 고교학점제와 리버럴아츠교육의 효율적인 접목을 통한 선진화된 미래학교 구현입니다.

이제 학교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융합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대정신을 읽고 자유로운 생각과 실천이 가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윤리적 생활공동체 일원임을 자각하여,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 삶과 기술 및 지혜를 배우고 다양한 도전을 통해 학교자치를 지향하는 교사와 학생이 되어 미래의 주도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교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반영할 교과선택을 위해 고교학점제에 대비할 수 있는 열정적이고 유능한 선생님을 연차적으로 모시겠습니다.

또한 인간다움, 미래다움은 인문학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리버럴 아츠 교육입니다. 인간중심 사고에 바탕을 두어 인간에 집중하며 그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력이 결합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될 것입니다. 리버럴아츠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의 삶이 남을 부러워하면서 닳고 싶고, 되고 싶어하는 'WANT'의 삶을 넘어서서, 진정 자신이 하고 싶고,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

는 'NIKE'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동고교육동체 구성원 모두의 기대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동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되는 교장이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포천에서 치열하게 생활했던 9년간의 소중한 기억 때문인지 3년 전에 포천의 어느 한 자그마한 마을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포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일동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학교의 발전을 통해 포천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축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나의 여망을 더해 금번 교장공모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자기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